

## 티탄 (Titan 원전 Titen 복수형 Titanes 원전 Titenes) 신족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Uranos 라/Uranus 하늘)와 가이아(Gaia 대지)사이에는 모두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중 오케아노스는 테튀스(Tethys)와, 휘페리온(Hyperion)은 테이아(Theia)와, 크로노스(Kronos)는 레아(Rhea)와, 코이오스(Koios)는 포이베(Phoibe)와 오누이끼리 결혼하고, 크레이오스(Kreios)와 이아페토스(Iapetos)는 각각 티탄 신족(神簇)에 속하지 않는 에우뤼비에(Eurybie)와 클뤼메네(Klymene)와 결혼하며, 나머지 두 자매 테미스(Themis)와 므네모쉬네(Mnemosyne)는 제우스의 아내가 된다. 원래 티탄 신족에는 이들 여섯 형제만 포함되었으나, 나중에는 여섯 자매(이들은 Titanides 단수형 Titanis라고 불리기도 한다)외에도 이들의 자녀들, 이를테면 휘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헬리오스(Helios 태양신) 및 에오스(뎨 라/Aurora 새벽의 여신),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들인 레토(Leto 라/Latona)와 아스테리아(Asteria), 이아페토스와 클뤼메네의 아들들인 아틀라스(Atlas '지탱하는 자', '참고견디는 자'란 뜻)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사전에 생각하는 자'란 뜻. 프로메테우스는 아이페토스와 테미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도 포함되었다. 이들 12남매 가운데 막내인 크로노스가 어머니 가이아의 권고에 따라 지하의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던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또 다른 자식들은 헤카톤케이레스들(Hekatoncheires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들'이란 뜻)과 키클롭스(Kyklops 복수형 Kyklopes '눈이 둥근 자'란 뜻)들을 풀어주고 이들과 합세하여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다음 우주의 지배자가 된다. 그 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의 삼형제와 헤라, 테메테르 및 헤스티아의 세자매가 태어나는데, 크로노스는 자신이 자식들 중 한 명에 의해 축출될 운명임을 알고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린다.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아기 대신 돌맹이를 포대기에 싸서 건네주고, 아기는 크레테(Krete 라/Creta)섬의 동굴이 감춘다. 장성한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자신의 첫째 아내가 된 메티스(Metis '지혜, '사려'란 뜻)를 설득해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타먹이게 하여 그가 삼킨 돌맹이와 자식들을 토하게 하고 이들과 합세해 '티탄 신족과의 전쟁'(Titanomachia)을 일으킨다. 이때 티탄 신족은 가이아의 또 다른 아들들로 괴물들인 기가스(Gigas 복수형 Gigantes)들과 거대한 괴물 튀폰(Typhon 또는 Typhoeus)의 도움을 받고, 제우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젊은 신들은 키클롭스들(이들은 호메로스에서는 외눈박이 거한들이지만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삼형제로 제우스에게는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쓰면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모자를 만들어준다)과 헤카톤케이레스들의 도움을 받는다. 티탄 신족의 자식들 가운데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 편을, 프로메테우스는 젊은 신들 편을 든다. 그러나 10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제우스 형제들이 제우스의 번개에 힘입어 티탄 신족을 제압해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아틀라스에게는 어깨에 하늘을 떠메고 있게 하는 벌을 내린 다음 셋이서 제비를 던져 우주를 삼분(三分)한다. 이때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고 대지는 공유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올림포스 신족의 시대가 시작된다.

## 제우스 (Zeus 라/Iuppiter)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신인 제우스(Zeus 이오니아-앗티케 방언, Deus 라케다이몬, 보이오티아, 로도스, 코린토스 방언, Zdeus 레스보스 방언)란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대부분 어떤 어원이 불명확한 것과는 달리 '빛나는 자', '번쩍이는 자', '번개 치는 자'란 뜻의 인구어(印歐語) Dje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래서 Zeus의 호격은 Zeu지만 사격(斜格)은 어간 Di-에서 유래한 Dios(속격), Dii(여격), Dia(대격)와 어간 Zen-에서 유래한 Zenos(속격, Zeni(여격), Zena(대격)의 두가지가 있다. Djeusfk는 인구어는 그리스어 때ям(;좋은 날씨'란 뜻)와 라틴어 Iuppiter(←Diespiter←Dieupater '아버지 제우스'란 뜻), Deus(신), Dies(낮, 날)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제우스는 티탄 신족에 속하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아들(호메로스에서는 맏아들)이다. 크로노스는 자식들 중 한 명에 의해 축출된

운명임을 알고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리지만 제우스가 케레테 섬에서 태어났을 때 또는 아르카디아에서 태어나 크레테로 옮겨졌을 때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아기 대신 돌맹이를 포대기에 싸서 건네주고, 아기는 디테(Dikte 최고봉 539미터) 산 또는 이데(Ide 최고봉 2,456미터) 산에 있는 동굴에 감춰두고는 자신의 시종들인 쿠레테스들(Kouretes)로 하여금 돌보게 한다. 쿠레테스들은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기 주위에서 춤추며 창으로 방패로 요란하게 쳤다고 한다. 아마테이아(Amaltheia)란 염소 또는 요정의 젖을 먹고 자란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자신의 첫째 아내가 된 메티스를 설득하여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타먹이게 하여 그가 삼킨 돌맹이와 자식들을 토하게 한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듯이, 제우스는 이들과 합세하여 '티탄 신족과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천둥 번개에 힘입어 10년 만에 힘겨운 승리를 거둔다. 제우스 삼형제는 제비를 던져 우주를 삼분하는데 이때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고 대지는 공유한다. 그리하여 천둥, 번개, 바람, 구름 같은 모든 기상 현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으로서 제우스는 구름이 모여드는 높은 산들, 즉 아르카디아의 뤼카이온(Lykaion 최고봉 1,420미터) 산이나 뎃살리아(Thessalia)의 올림포스(Olympos 최고봉 2,917미터)산에 머물게 되고 천둥 번개는 아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의 막강한 힘의 징표가 된다. 제우스는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페르세포네 같은 강력한 신들의 아버지이지만,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에 의해서는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베, 에일레이티비아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이다. 그 밖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제우스의 자식들로는 헤라클레스, 헬레네, 페르세우스, 미노스, 암피온과 제토스 형제가 유명하고, 디오스쿠로이드들(Dioskouroi '제우스의 아들들'이란 뜻)은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주장과 둘 다 아니라는 주장과 둘 중 폴뤼테우스케(Polydeukes 라/Pollux)만 제우스의 아들이고 카스토르(Kastor 라/Castor)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제우스는 흔히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는 아니며, 인간을 만든 것도 그가 아니라 테우칼리온 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한다. 그의 이름에 붙여진 별명들은 그의 역할을 말해주는데, 그는 통치자 및 보호자란 의미에서 아버지(Pater)이며, 그런 의미에서 또 가정의 보호자(Herkeios)이자 재산의 보호자(Ktesios)이기도 하다. 그는 또 손님들의 보호자(Xenios)이자 탄원자들의 보호자(Hikesios)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Sot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우스는 전쟁, 농사, 공예 같은 인간들의 일상사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광범위한 역할에 힘입어 전(全)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보편적인 신이다. 그래서 올림피아(Olympia)에서 열린던 제우스의 제전은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 가장 규모가 큰 범그리스적 제전이 되었고, 이 제전에 참가하는 것은 곧 그리스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 포세이돈 (Poseidon 원전 Piseidaon 라/Neptunus)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제우스 및 하데스와 형제간이며 암피트리테의 남편이다. 제우스 형제들이 티탄 신족을 제압하고 우주를 삼분할 때 바다를 몫으로 받는다. 포세이돈은 호메로스에서는 제우스의 아우지만 헤시오도스에서는 형이다. 포세이돈의 거처는 아이가이(Aigai)근처의 바다 속에 있으나 신들의 회의가 있을 때는 올림포스에도 올라간다. 그는 바다의 지배자로서 폭풍이나 순풍을 보내주며 지진의 신으로서 '대지를 흔드는 이'(Enosichthon 또는 Enosigaios)라고 불리는가 하면 바닷물로 대지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대지를 떠받치는 이'(Gaieochos)라고도 불린다. 포세이돈은 또 말(馬)의 신으로서 말을 사용하는 각종 경기의 창안자 겸 감독이다. 포세이돈은 트로이아 왕 라오메돈이 성벽을 쌓아 준 보수를 주지 않았다 하여 트로이아 인들을 적대시 하지만, 그렇다고 늘 그리스인들 편은 아니다. 『오뒷세이아』에서는 아들 폴뤼페모스를 눈멀게 한 오뒷세우스를 몹시 괴롭힌다. 포세이돈의 힘과 권위의 상징은 삼지창인데, 이것으로 그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한다. 그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검은 황소나 검은 숫양, 검은 수탉지를 쓴다. 그의 신전은 호메로스에서는 헬리케(Helike)에

있는 것이 언급되고 있으나, 후기의 것들로는 소아시아의 뮈칼레(Mykale)산에 세워져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이오니아인들의 종교적 구심점이 되었던 범이오니아 신전(Panionion)과 기원전 444년 경 앗티케 지방의 최남단 수니온(Sounion 라/Sunium) 곳에 세워진 것이 유명한다, 이 신전은 폐허가 되어 도리스식 기둥 11개만 남았지만(1958~1959년에 네 개가 다시 세워져 지금은 15개임) 선원들에게는 항해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앗티케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다툰 때, 그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쟁물이 솟아나게 해주었으나 아테네는 올리브나무를 주어 아테나이인들에 의해 승리자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헤라와 아르고스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다투다가 헤라가 원래부터 그 도시의 보호자였다는 이유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자 화가 나서 그곳의 강들을 모두 말리고 나라에 해일이 일어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 하나인 코린토스의 이스트모스(Isthmos '지협'이란 뜻) 제전은 그를 위해 그의 신전 앞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코린토스가 양쪽 바다를 끼고 있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 하데스 (Hades 원전 Aides 또는 Aidoneus 라/Pluto '보이지 않는 자'란 뜻)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세 아들 중 하나로 제우스 및 포세이돈과 형제간이다. 제우스 삼형제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권좌에서 축출하고 제비를 던져 우주를 삼분할 때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내 페르세포네와 함께 저승의 사자(死者)들을 지배한다. 하데스는 가혹하고 무서운 신이기는 하나 인간들과 다른 신들에게 적대감을 품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흔히 완곡하게 플루톤(Plouton 라/Pluto 또는 Dis '부름 가져다주는 이'란 뜻)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각종 귀금속을 비롯한 부(富)의 원천이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하데스란 이름은 어원이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보이지 않는 자'란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호메로스에서는 언제나 신 자신을 가리키지만 다만 『일리아스』 23권 244행에서는 그가 다스리는 영역 즉 저승을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개 하데스가 다스리는 사자(死者)들은 나라 즉 저승이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호메로스에서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오뒷세이아』에서는 또 저승이 대지를 빙 둘러싸고 흐르는 오케아노스 흐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 입구에는 한번 들어온 사자가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케르베로스라는 개(호메로스는 '개'라고만 부르고 있다.)가 지키고 있고, 그곳에는 또 아케톤, 휘리플레케톤, 코퀴토스 및 스틱스라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중 아케톤과 코퀴토스는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 지방에 실재하는 강이고 코퀴토스는 아케톤의 지류다. 땅각의 강 레테(Lethe)는 라틴 문학에서 처음으로 저승을 흐르는 다섯 강의 하나가 되었다.

### 헤라 (Hera 원전 Here 라/Luno)

헤라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다. 그러한 지위에 힘입어 헤라는 신들의 여왕과도 같은 권위를 누린다. 헤라는 제우스에 의해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베 및 에일레이티아(출산의 여신)의 어머니가 된다. 헤라는 결혼과 출산의 여신이면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에 분개하여, 이를테면 이오나 세멜레처럼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들과 헤라클레스나 디오닉수스처럼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남편의 자식들을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질투심 많은 아내로 그려진다. 헤라의 신전들로는 아르고스 지방에 있는 것들과 소아시아 사모스 섬에 있는 것이 특히 유명하다. 이른바 '파리스의 심판'에서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불화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도록 판정 한 뒤로 헤라는 아테네와 함께 트로이아를 미워하게 된다.

### 아테네 (Athene, Athenaie 또는 Athenaia 라/Minerva)

호메로스에서는 아테네 또는 아테나이에(Athenaie)란 이름으로 쓰이고 비극에서는 아테나이아

(Athenaia)란 이름이 쓰이며 기원전 4세기에는 아테나이아의 축약형인 아테나(Athena)가 통용되었다.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앗티케 지방의 영유권을 놓고 다툰 때 포세이돈은 아테나이시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쟁물이 솟아나게 했으나 아테네는 올리브나무를 주어 아테나이인들에 의해 승리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시 이름에서 여신의 이름이 유래했는지 아니면 도시의 수호여신의 이름에서 도시의 이름이 유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테네는 그리스 본토와 여러 섬들과 식민시(植民市)들을 포함한 전(全)그리스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녀에게 바쳐진 신전들 중에서는 처녀신 아테네(Athena Pathenos)를 위해 아테나이외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Parthenon '처녀신의 신전'이란 뜻)이 가장 유명하다.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으로 미술품에서는 무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아테네는 또한 모든 세련된 공예와 직조의 보호자이자 지혜의 여신이며 피리도 그녀가 만들어냈다고 한다. 아테네는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지만 신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메티스가 아버지보다 강한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제우스가 그녀를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힘과 지혜를 겸비하게 된다. 그 뒤 때가 되어 헤파이스토스 또는 프로메테우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열자 아테네가 완전무장한 채 함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아테네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신으로 남는다. '파리스의 심판'에서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불화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도록 판정한 뒤로 아테네는 헤라와 함께 트로이아를 미워하게 되지만 그녀는 팔라스 아테네의 여신상인 팔라디온(Palladion 라/Palladium)에 의해 트로이아 성(城)의 수호여신이기도 하다. 이 팔라디온은 제우스가 트로이아의 창건자인 다르다노스에게 하늘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트로이아는 그것을 모시는 한 함락되지 않게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의 영웅들인 오뒷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그것을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트로이아가 함락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아테나이, 아르고스, 스파르테로 옮겨졌다고 하며, 로마인들은 기원전 390년 갈리아인들의 공격으로 로마를 지켜준 것으로 믿어졌던 베스타(Vesta)신전에 모셔놓은 여신상이 다름 아닌 팔라디온으로 트로이아가 함락될 때 트로이아에서 도망쳐 이탈리아로 건너온 트로이아의 장수 아이네이아스가 갖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원전 5세기의 미술품들에서 아테네의 어깨 위에 부엉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흔한 별명인 글라우코피스(Glaukopis)란 말이 Glaux(올빼미)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이 말을 '올빼미의 얼굴을 가진'또는 '올빼미의 눈을 가진' 이라고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올빼미는 아테네 여신의, 나아가 서양적 지혜와 창안력의 상징 동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은 대개 Glaukos('번쩍이는', '빛나는'이란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 '빛나는 눈의'라고 번역되고 있다.

### 아폴론 (Apollon 라/Apollp)

아폴론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쌍둥이 누이 아르테미스와 함께 델로스(Delos)섬에서 태어났다. 그는 역병(疫病)의 신이면서 치유(治癒)의 신이며, 궁술(弓術)과 예언과 음악과 광명(光明)의 신이자 가축떼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원숙한 남성미와 탁월한 도덕성의 화신이며 문명의 시혜자이기도 한 아폴론은 가장 그리스적인 신으로서 그리스의 남신(男神)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각품의 대상이 되었지만, 염복(鹽福)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폴론에 얽힌 수많은 불운한 사랑 이야기 중에는 의신(醫神)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라/Aesculapius)의 어머니 코로니스(Koronis), 트로이아 왕 프리아모스의 딸로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한 캄산드라(Kassandra), 북아프리카에 그리스 식민지 퀴레네(Kyrene)를 세운 요정 퀴레네, 아폴론에게 쫓기다가 월계수로 변한 요정 다프네(Daphne), 미소년 휘아킨토스(Hyacinthos), 제우스가 둘 중 한 명을 고르라고 하자 둘이 같이 늙어갈 수 있다고 하여 신인 아폴론 대신 인간인 이다스를 선택한 마르케사, 아폴론에게 천 년의 수명을 얻었으나 영원한 젊음까지 요구하기를 잊은 까담에 나중에 어서 죽기를 바랐던 큐메(Kyme 라/Cumae 지금의 나폴리 만 근처에 있던 그리스 식민시)의 무녀(巫女) 시빌라(Sibylla)와의 사랑 이야기가 유명하다. 아폴론이 델포이에서 숭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 북북 지방이나 소아시아에

서 유래했는 주장도 있다. 아폴론이 왜 어떻게 예언의 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헌에서도 예언의 신이며, 그의 신탁소는 델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 그 밖에 델로스에 있는 것과 소아시아 아오니아 지방의 브랑키다이(Branchidai)와 클라로스(Klaros)에 있는 것도 유명했다. 아폴론은 전 그리스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 아르테미스 (Artemis 라/Diana)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딸로 쌍둥이 오라비 아폴론과 함께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다.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어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녀는 사냥과 순결의 여신이자 야생 동물의 보호자이며 여인들에게 화살을 쏘아 갑자기 죽음을 안겨주는 무서운 처녀신이다. 아르테미스는 가끔 달의 여신과 혼동되는가 하면 외국의 여러 여신들 특히 에페소스(Ephesos)의 위대한 지모신(地母神)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아르테미스의 숭배는 그곳으로부터 맞살리아(Massalia 라/Massilia 지금의 프랑스 Marseilles)를 거쳐 로마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아프로디테 (Aphrodite 라/Venus)

아프로디테는 여성미와 성애(性愛)와 다산의 여신으로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그 남근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주위에 일기 시작한 바다 거품(그리스어로 aphros)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태어나서 맨 먼저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 또는 라케다이몬 지방의 동남 해안 앞에 있는 키테라 섬에 상륙한 까닭에 키프리스(Kypris) 및 키테레이아라는 별명들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메로스에서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Dione, Zeus의 여성형)의 딸로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다. 그녀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밀애를 즐기다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교묘한 그물에 갇혀 신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아프로디테에 얽힌 이야기로는 미소녀 아도니스(Adonis)에 대한 사랑이야기와 ‘파리스의 심판’에 대한 대가로 파리스가 절세미인 헬레네를 데려가도록 도와준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 밖에 그녀는 트로이아인 앙키세스를 사랑하여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때 헥토르 다음으로 가장 용감한 트로이아군 장수로서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에 따르면, 트로이가 함락된 뒤 그는 가족과 전우들을 데리고 트로이아를 떠나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서 로마의 전신인 알바 롱가(Alba Longa)를 건설한다. 후기 문학에서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 에로스(Eros)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시킬리아 섬 북서부 에릭스(Eryx)산에는 아프로디테의 이름난 신전이 있는데 로마인들은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자신들의 시조 할머니로 여긴 까닭에 이 신전을 매우 중시했다고 한다.

### 헤르메스 (Hermes 원전 Hermeias 라.Mercurius)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Maia)의 아들로 아르카디아의 켈레네 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던 날 정오에 요람을 떠나 거북을 죽여 그 껍질로 튀라(lyra)라는 악기를 만들었고 같은 날 아폴론의 소떼를 훔쳤다고 한다. 헤르메스는 여신 이리스와 더불어 신들의 사자(使者)이며 또 사자(死者)들의 혼백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혼백 인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 복(福)을 가져다주는 신으로서 상인과 도둑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그의 권능의 상징은 황금 샌들과 사람을 마음대로 재우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는 지팡이다. 적군 또는 이방인들과의 성공적인 교섭도 헤르메스의 소관으로 해석학(解釋學 hermeneutics)이란 말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 헤파이스토스 (Hephaistos 라/Vulcanus)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헤라가 혼자서 낳은 아들이라고도 한다.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불을 사용하는 모든 공예 특히 금속공예의 신이다. 그는 날 때부터 절름발이여서 어머니 헤라가 올림포스에서 내던졌으나 바다의 여신들인 테티스(Thetis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와 에우뤼노메(Eurynome)가 받아 9년 동안 돌봐주었다. 또 한번은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할 때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하여 제우스가 그를 올림포스에서 렘노스 섬으로 내던졌으나 그곳에 사는 산티에스족이 그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그는 뛰어난 솜씨로 술한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도 a)테트스의 부탁을 받고 만든 아킬레우스의 무구들, 특히 방패와 b)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밀애를 즐기다가 갇힌 그물 c)신들의 청동 저택들 d)황금으로 만든 소녀들 e)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을 수호하는 개들 f)제우스의 아이기스등이 특히 유명하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그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최초의 여인 판도라(Pandora)를 만들었다고 한다.

### 아레스 (Ares 라/Mars)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전쟁의 신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와는 달리 계획도 절제도 없이 맹목적으로 불화와 유혈과 살육을 조장하고 이를 즐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동작이 민첩할 뿐 아니라 올림포스 12신에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만용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 존경 받지 못하며 인간들을 상대해서도 화려한 성공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군 장수 디오메데스의 창에 부상당하는가 하면,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에게 13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기도 했다.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밀애를 즐기다 교묘한 그물에 갇혀 신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아레스에게 로마의 군신 마르스의 위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디오니소스 (Dionysos 일명 Bakchos 라/Bacchus)

디오니소스는 테바이 왕 카드모스의 딸인 세멜레(Semele)에게서 얻은 제우스의 아들이다. 세멜레가 임신했을 때 질투심 많은 헤라는 그녀의 유모로 변장하여, 제우스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와달라고 조르라고 세멜레를 설득한다. 그동안 제우스는 크레테 왕 미노스의 어머니 에우로페에게는 황소의 모습을, 헬레네의 어머니 레다(Leda)에게는 백조의 모습으로,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Alkmene)에게는 그녀의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가던 것이다. 제우스가 어떤 칭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먼저 맹세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세멜레의 간청대로 하자 세멜레는 그의 번개에 타 죽는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재 속에서 구해내 자신의 넓적다리 속에 집어넣는다. 때가 되어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제우스는 세멜레의 언니이자 아타마스의 아내인 이노에게 아이를 맡겼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헤라는 이들 부부를 미치게 한다. 아타마스는 아들 레아르코스(Learchos)를 죽이고, 이노는 다른 아들 멜리케르테스(Melikertes)를 안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다. 결국 이노는 레우코테아(Leukothea '하얀 여신'이란 뜻)라는 이름의 바다 여신이 된다. 그 뒤 디오니소스는 뉘사(Nysa)산의 요정들에 의해 양육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 산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가 처음으로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준 곳도 이곳이라고 한다. 포도주와 도취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처음에는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박해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에는 이를 모두 극복한다. 그의 행렬에는 사튀로스(Satyros 사람의 생김새에 말꼬리 또는 염소 다리를 가진 괴물)들과 마이나스(Mainas 복수형 Mainades '광란하는 여인'이란 뜻)라 불리는 수많은 여신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들은 취해서 또는 씩어서 주위에서 춤추며 그를 수행한다. 주신 디오니소스는 후일 연극 공연이 포함된 디오니소스 제전(Dionysia)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호메로스에서는 모두 다섯 번, 그것도 부차적으로 언급될 뿐이어서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리스에 뿌리내린 것은 호메로스 이후로 추정된다.

## 오케아노스 (Okeanos)

오케아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로 누이인 테튀스와 결혼해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오케아노스는 바다가 아니라 대지를 감돌아 흐르는 일종의 강(江)으로 지상의 모든 강은 그에게서 발원하며 해와 별들도 오케아노스에서 뜨고 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이티오페스족, 킴메리오이족, 뿔그마이오이족(Pygmaioi 난장이족), 삼두삼신(三頭三神)의 거한 게리오네우스(Geryoneus), 너무나 무서워 보는 이를 돌로 변하게 한다는 고르고 자매들(Gorgones 단수형 Gorgo), 헤스페리데스 자매들(Hesperides)이 지키고 있는 황금 사과나무 등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것은 오케아노스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 레토 (Leto 라/Latona)

레토는 티탄 신족으로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이다. 그녀는 제우스에 의해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된다. 질투심 많은 헤라는 레토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을 알고 햇빛이 비치는 육지에서 레토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포세이돈이 나중에는 해저(海底)에 고정되었으나 당시에는 떠 있는 섬이었던 오르튀기아(Ortygia)로 그녀를 데려가 그 위에 바닷물로 얽은 물막을 쳐 햇빛이 들지 않게 해놓고 그 아래에서 출산하게 해준다. 일설이 따르면, 레토는 당시에는 역시 떠 있는 섬이었고 오르튀기아라고도 불렸던 텔로스 섬에 가서 아폴론이 후일 큰 신전을 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그곳에서 출산했는데, 이에 헤라가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를 보내주지 않아 레토는 예정보다 늦게 출산을 하며 그곳의 킨토스(Kynthos)산 또는 종려나무에 몸을 기댔다고 한다.

## 데메테르 (Demeter 라/Ceres)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다. 그녀는 농업과 곡식의 여신이자, 엘레우시스(Eleusis) 비의(秘儀)의 여신이다. 그녀는 제우스에 의해, 나중에 하데스의 아내가 된 페르세포네(Persephone)의, 그리고 이아시온(Iasion)에 의해 부(富)의 신격화인 플루토스(Plutos 라/Plutus)의 어머니가 된다.

## 페르세포네 (Persephone 원전 Persephoneia 라/Proserpina)

페르세포네, 일명 코레(Kore '처녀'란 뜻)는 제우스와 데메테르의 딸로 시킬리아 섬의 헨나(Henna)고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꽃을 따다가 김푸른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갑자기 땅 밑에서 나타난 하데스에 의해 저승으로 납치된다. 이 소식에 곡식과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가 올림포스를 떠나 실종된 딸을 찾아 지상을 떠돌아다니느라 농사를 돌보지 않자 대지에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된다. 데메테르를 달래지 않으면 인간들이 곧 다 죽고 신들도 제물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제우스는 이리스를 엘레우시스로 보내 데메테르를 올림포스로 불러오게 하지만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자 제우스는 페르세포네가 저승에 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게 하자 하데스도 이에 동의하고 그녀가 떠날 때 석류 열매를 하나 준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페르세포네는 그 석류 열매를 하데스의 정원을 거닐다가 뺏다고 한다. 페르세포네가 엘레우시스에 도착하자 데메테르는 저승에서 무엇을 먹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에 페르세포네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케론(Acheron)강의 아들 아스칼라포스(Askalaphos)가 그녀가 석류 열매 씨 몇 개를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자 그녀도 시인한다. 그녀는 네 개 내지 여섯 개의 씨를 먹었던 것이다. 그 보복으로 페르세포네는 아스칼라포스를 올빼미로 변신시킨다. 일설에 따르면 데메테르는 그를 큰 바위로 눌러놓았는데,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 개를 끌고 가려고 저승에 갔을 때 그 바위를 밀어내자 데메테르가 다시 그를 올빼미로 변하게 했다고도 한다. 일단 저승에서 무엇을 먹고 마신 자는 하데스의 것이므로 제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일 년 중 8개월 또는 6개월은 지상의 어머니 곁에 머물고 나머지 기간은 지하로 내려가서 하데스 곁에 머물라고 하자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도 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가 곁에 머무는 동안(그리스에서는 우기에 해당하는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대지에 축복을 내려 온갖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지만, 페르세포네가 떠나고 없는 동안(그리스에서는 고온 건조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름)에는 대지에 축복을 내려주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판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가 봄에 지상에 돌아왔다가 겨울에 하데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새 곡식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하는 자연 현상의 알레고리로 볼 수도 있다.